

## 재해로부터의 회복

자연재해에 직면했을 때 자연과 인간에게는 회복력이 있습니다. 1990년부터 1995년에 걸쳐 발생한 헤이세이 대분화 이후 시마바라반도 동부의 지역사회는 바로 부흥했습니다. 토사는 치워졌고 위령비가 세워졌으며, 재해 여파를 조사하고 향후 분화에 대비하기 위해 헤이세이신잔 네이처 센터가 200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자연의 회복 강도와 속도는 특히 더 보고 있으면 힘이 납니다.

분화 기간 동안 다루키 대지는 여러 번 화쇄류에 의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헤이세이신잔 산 정상에서 불과 2.5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이 지역은 가스, 바위, 재의 고온 고속 혼합물로 인해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분화 직후 촬영된 현장 사진에는 수 미터의 잔해에 파묻히지 않고 고온 가스에 눌어붙은 식물이 찍혀 있었는데, 마치 화성의 지표를 보는 듯 합니다.

## 후박나무

이 거대하고 건강한 나무처럼 식물에 따라서는 자연의 화재로부터 살아남은 것도 아주 조금 있습니다. 이 나무는 후박나무라고 하는 일본 원산의 세계 최대급 월계수 표본입니다. 후박나무는 상록수이며 잎이 크고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특징과 행운이 화쇄류에 의한 파쇄와 발화를 막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